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하면

선지식을 찾아서 | 세모에 되새기는 가르침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세계적 경제 한파가 덮친 올 연말은 어느 해보다 쓸쓸하고 우울하다. 중생이 힘들 때, 기댈 곳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다. 헛된 망상이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 보다는 바른 가르침에 기대어 바른 마음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난 선지식들이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조용히 되새겨 보자.

●…… 새로 시작합니다. 본래가진 밀전을 손질해서 새로 시작합니다. <660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 1초를 열분하다라도 지구정성으로 한다면 그 1초가 바로 극락이 된다. 자비를 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광채가 발산됩니다. 그 광채가 바로 불성광명이고 아미타불입니다. 여러분들 본마음이 아미타불입니다. <661호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

●…… 열릴 생각하면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 찾기 쉬워 보이지만 이 세상보다 내 마음속이 더 복잡해서 헤매게 됩니다. 새해 내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당장 마음을 내세요. 언어머지 말고 베푸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662호 용인 만의사 율주 정락 스님>

●…… 깨칠 때는 일체공부가 다 된 것이지만 계속 여여부동하게 지키고 쓰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날 때는 '화난 것이 뭐꼬' 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답답할 때는 답답한 것이 뭐꼬, 차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게 뭐꼬, 욕심 낼 때는 욕심 내는 게 뭐꼬, 나무야미 타발을 열할 때는 열불하는 이것이 뭐꼬,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 게 뭐꼬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렇고' '화두로 의단이 뭉쳐지게 됩니다. <663호 진전 불리굴 주석 영홍 스님>

●…… 눈 뜰 때가 내가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땅도 하늘도 새로 열리는 때입니다. 새날 새아침에 새로 얻은 몸이요, 새로 얻은 땅이요 하늘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새로 태어난 내가 새로 얻은 몸과 새로 얻은 태양으로 모든 이를 안아줍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664호 덕숭총림 수덕사 유나 우송 스님>

●…… 불교는 실천입니다. 교리를 알고 참선과 열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665호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만 스님>

●…… 화두를 참구하는 요결은 이러저러한 행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간절 절(切)' 자에 있습니다. <666호 화계사 문화원장 모봉 스님>

●…… 기러기는 북으로 가고/산물은 남으로 흐르네/할 일 없는 산승은/밀도 끝도 없는 허공에서/달을 찾아 헤매는 구나/꽃 피고 새 우는 소식이/어찌 불발에만 이르랴. <667호 마곡사 대화선원장 진광 스님>

●…… 보살은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니게 됩니다. 지혜는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참회(懺悔)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자꾸 장애물이 생기게 되지요. '참'은 스스로를 누우치는 것이고 '회'는 자기 고백입니다. <668호 불국사 주지 · 회주 성타 스님>

●…… 처음 열불할 때는 자신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수행력이 익어지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열불이 저절로 됩니다. <669호 중앙승가대 교수 태원 스님>

●…… 갈 때 가더라도 주워 담은 경주머니는 다 비우고 가야합니다. 짙어지는 죽신성불 하겠다고 기고만장했지만, 경전 공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670호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 병고(病苦)를 극복하는 과정은 공부의 큰 전기가 되었습니다. 일체가 환상이고 꿈이라는 사실이 뻗속 깊이 느껴져야, 일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과 번뇌 속에서도 순수해지고 괴롭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번뇌와 생사가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71호 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절정 스님>

●…… 고요함 가운데서 고요함을 유지하기는 쉽지만, 소란스러운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부처님 앞에 올 때는 빈 그릇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미 욕심을 그득 그득 채우고서 오니 주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득찬 그릇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어요. 비우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672호 팔달사 주지 해광 스님>

●…… 공부가 따로 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일념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신심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해요.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 라고 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회사

의 사원들 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화합이 깨지지 않아요. <673호 가사 도관수 무상 스님>

●…… 사람이 깊이 잠들면 아무 것도 못 느낍니다. 이 하나가 깨어날 때 모든 게 깨어납니다. 이 한 생각 안에 천지 삼라만상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거기에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천지만물과 둘 아닌 만법의 왕,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674호 화엄사 선승선원장 현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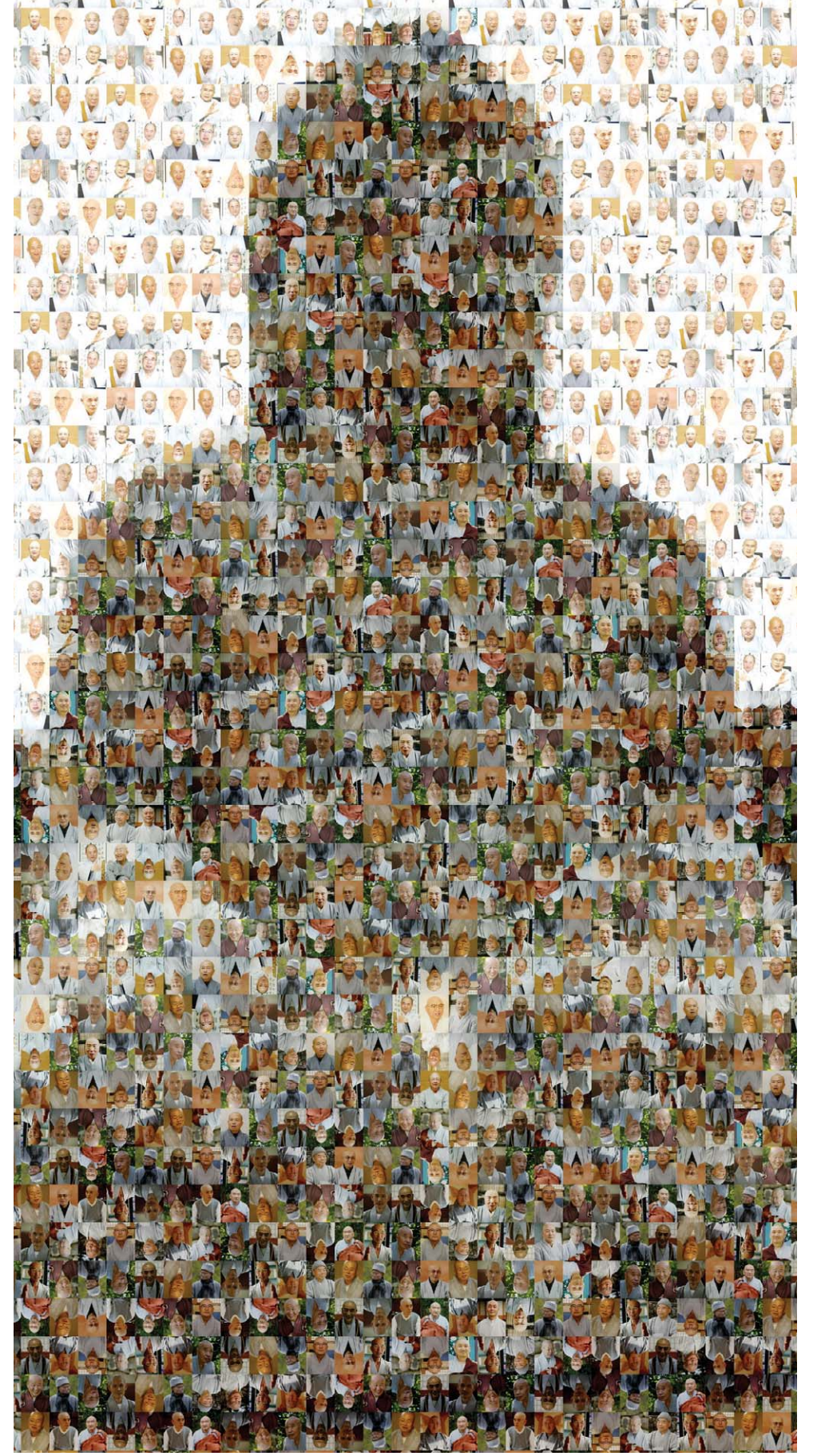
●…… 절의 선방만이 선방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선방이 되기 위한 전초지가 바로 선방입니다. 허공이 옛날 허공 그대로 이듯이, 사람들의 근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쾌락을 좇아가고 쉬운 길을 가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몸뚱이의 쾌락을 좇아서 내려가는 길로 질주하면 하근기요, 맑은 정신 문화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상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675호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삶 자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이 더 많은 법입니다. 자기 허물부터 생각하

세요. 남의 허점 보이면 내 허물이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호흡을 제대로 해보세요. 한바디 할 때 생각 없이 내뱉으면 독화살이 나가는 것입니다. <676호 용인 반야선원 조실 자광 스님>

●…… 내 지식도 부처요, 내 부모도 부처요, 내 형제도 부처요, 내 이웃도 부처지요. 더 나아가서는 저산천초목 흐르는 냇물, 나무, 돌 등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잉크 옆에 가면 잉크를 빨아들이고 먹물 옆에 가면 먹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속성이다. 쉽게 빨아들이지 않으려면 숨을 기르며 꼭 적었다가 건져내면 어디에 가도 물들지 않듯이, 부처님 교리로 무장되고 그 속에 꼭 적어버린다면 물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677호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 삼라만상은 중생의 업이 나타낸 것입니다. 업따라 인연따라 펼쳐지는 생멸하는 삶은 '살아있는 꿈'이지요. 그저 일에 집중해서 온 정성을 모두어 일해 보세요. 탐진치 3독심이 눈녹 듯 사라지고 온갖 번뇌를 여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상(相)내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있다'는 헛된 집착이 '상'인데 그 상으로 3독심이 생기고 그 3독심



2008년 한해동안 찾아 뵈었던 선지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어 중생고를 떨쳐 버릴 것을 가르쳤다. 사진은 선지식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한 것.

가르침에 폭 젖으면 악한 물 안들어 인연따라 생멸하는 삶은 모두가 '꿈'

한달 유지비 4,000원
(하루 8시간)

전자파 걱정 끝
초박형 보일러 타입

장수돌침대 만의
믿을 수 있는 A/S

다년간의 연구끝에 숙면과학의 결정체 온수매트 개발!!

2009년 **장수돌침대 온수매트** 신상품!

첨단 고효율 PTC방식

"진짜 장수돌침대" 고객이 아할때까지!!

별다섯! 장수돌침대, 기술력의 개가!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고객이 아할때까지!!

이젠 바뀌어 합니다. 전자파 없는 잠자리로...

뜨끈~뜨끈 후끈~후끈!

오로지 온수로만~ 최고 80도! 그 위에, 가마에 구운 황토볼을 딱딱! 찰싹을 딱딱 채워~ 황토찜질, 솜뽕까지!

■규격 : 2인용 : 1450 x 2000
1인용 : 1000 x 2000

고급형 2인용 248,000원
1인용 238,000원

또 하나의 기술력!
온도감지 안전기능유연 과열방지센서 등- 장수돌침대의 각종 첨단기술이/기술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모래모래!

하늘 순수, 물! 온수를 이용한, 한국형 매트!
돌 자체기술진의 숙면과학 실현! 전자파에 대한 걱정!
셋 초절전 기술로, 난방비 절약!
넷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A/S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100% 국산 소재와 장수산업기술력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품 주의)

※주의 : 타사인터넷 및 전시장 구입시 제품을 못받거나 A/S가 되지 않습니다.

난방비 걱정 끝! 전자파 걱정 끝!

1) 아직도, 그 비싼~ 기름값, 가스값을 낭비하십니까?
이젠, 보일러만큼 후끈후끈하게 따고!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에서 주무십시오!

2) 본인이 싸보시고, 정말 좋다고 인정되신다면,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십시오.

장수산업 수상내역

대한민국 대표기업	INNOBIZ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

www.onsu-mat.com www.장수온수매트.com

JANG SOO INDUSTRY CO., LTD. (주)장수산업 온수매트 사업부

무로 전화 080-788-7878 농협 943-12-426130 조운성